

# ‘신라’와 ‘불교’의 행복한 만남 慶州南山

## 「겨레의 땅 부처님 땅」 펴낸 윤경렬옹

경주라는 도시. 일찍이 신라의 수도로 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으며, 이제는 그 시대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논과 논 사이, 집과 집 사이 어느곳이든 신라인이 누워 잠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지금은 그 후예들이 동해의 조용한 일출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다.

경주의 문화유산 중에서 불교유적은 그 어느곳보다 더 화려하고 또 양적으로도 많다. 특히 경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주 남산의 불교유산은 자연과 함께 신라인의 정신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현대에 와서도 그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주 남산은 볼 가치가 별로 없는 산으로 비쳐질 정도였다. 신라의 역사나 불교사, 고미술사, 그리고 경주를 근거로 한 향토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 ‘그런 곳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경주 남산을 바라보는 처지였다. 최근들어 ‘우리것을 알자’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 지방의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경주 남산도 관심의 초점이 돼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연구결과물이 많지 않아 그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 신화와 종교 그리고 겨레의 예술이 깃든 산

윤경렬옹(77)이 발품을 팔아 최근 결실을 맺은 「겨레의 땅 부처님 땅」(불지사)은 이같은 불교의 세계, 신라인의 세계, 경주 남산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계의 주목을 끄는 노작으로 평가된다. 윤옹이 경주 남산을 조명하게 된 것은 작게는 개인적인 소망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만, 크게는 일제에 의해 변조된 신라와 경주 그리고 남산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정신문화의 한 장을 다시금 되찾았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 윤옹은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에 대해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제통치 35년동안 조선총독부에서 「慶州南山의 佛蹟」이라는 이름으로 남산을 소개하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반세기가 다되어 가는데도 남산을 소개하는 우리 책자 하나 없더니, 경주시에서 「慶州南山古蹟巡禮」라는 이름으로 남산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책도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을 더 소개하고 틀린 곳을 바로잡아 地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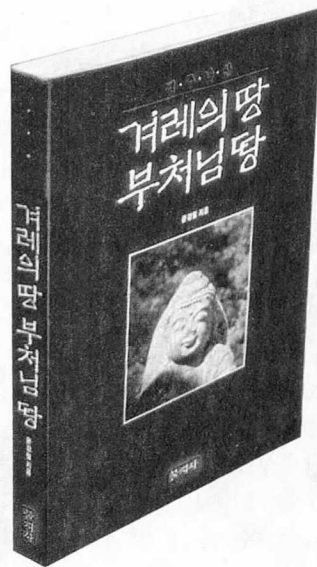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주남산은 볼 가치가 별로 없는 산일지 모르지만 이 산의 문화유적을 연구해온 윤경렬옹에게 있어서 이 산은 겨레의 신화와 종교, 그리고 예술이 깃든 산으로 비쳐진다. 최근 나온 그의 책 「겨레의 땅 부처님 땅」은 신라, 불교, 겨레의 예술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사계의 주목을 끈다.

에 나타난 모양이라도 남산을 알리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은 처음 남산에 얽힌 전설부터 이야기한다. 그 내용은 대강 이렇다.

어느날 시벌(지금의 경주) 시냇가에서 한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두 남신과 여신이 시벌로 찾아왔다. 신은 평화롭고 기쁜 신벌의 경치를 둘러 보면서 “야! 우리가 살 곳은 여기로구나”하고 감탄하였다. 이때 빨래하던 처녀가 신들이 외치는 우레같은 큰 소리에 놀라며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자 거기에 거대한 남녀가 자기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겁에 질린 처녀가 급한 나머지 “산파라!”하고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잃었다. 발 아래서 들려오는 처녀의 소리에 두 신은 발을 멈추었는데 더 이상 발을 옮길 수 없게 되었다. 두 신이 산으로 변했던 것이다. 남신은 남산으로, 여신은 남산 서쪽의 망산으로.

남산은 길이가 약 8킬로미터가 되고 동서너비는 4킬로미터 가량 되는데, 높이가 468미터인 금오봉과 494미터인 수리봉의 두 봉우리가 솟아 있다. 이 두 봉우리에서 뻗어내린 산발과 흘러내리는 계곡을 합쳐서 남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윤옹은 이 남산이 큰 산도 아니요, 그렇게 경치 좋은 절경의 산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도 남산은 우리 겨레가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산”이라고 강조한다. 즉 “겨레의 꿈이 어린 신화가 있고, 겨레의 종교가 숨쉬고, 겨레의 예술문화가 깃들어 있는 역사의 산”이 바로 경주 남산이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현재 남산에는 40여 계곡이 있는데 그 분위기가 모두 달라 신비감을 갖게 하고, 유적이 없는 계곡은 서너 계곡에 불과



하다는 것.

이 산에는 석기시대 유적도 여러곳이 있고,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 거서간이 탄생했다는 蘿井 같은 유적이 있는가 하면 신라 국방의 심장부였던 남산성도 이 산에 있다. 성터에는 망대자리와 무기창고터며 식량창고터들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유적에서는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지력도 엿볼 수 있다. 또 신라의 종말을 고하게 된 슬픈 포석정도 이 산기슭에 있다.

### 석불 웃주름에도 눈길 주는 세심함 돋보여

「겨레의 땅 부처님 땅」은 모두 29개 소제목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29개 소제목은 남산의 유물이 몰려 있는 곳을 구분하여 실었는데 그 순서는 왕정골, 절터골, 부처골, 탑골, 미륵골, 천암골, 철와골, 국사골, 오산계, 축두뜸골, 승소골, 천동골, 봉화골, 별천룡골, 백운계, 천룡골, 용장계, 비파골, 약수골, 배리절골, 샷갯골, 냉골, 선방골, 포석계, 장창골, 식혜골, 찾지못한 유적, 남산성과 장창지, 금오산 정상 등으로 남산의 골짜기 대부분을 거론하고 있다.

각 장에서는 그 장소의 지리적인 개괄을 정리하면서 주위 풍경을 설명하고 유적 분포도를 그려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지역의 유물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석불은 그 크기를 비롯해서 그곳의 전설이나 옛날 문헌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함께 기술하여 보여주고 있다. 석불의 경우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한껏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그 영향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옹의 글은

딱딱한 논문체 문장이 아니라 수필을 읽듯이 가볍게 읽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편하게 책을 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만하다. 가령 제1 왕정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석조여래상을 설명하는 윤옹은 웃주름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불상에는 웃주름도 이상한 방법으로 나타내었다. 웃주름은 언제나 윗면에 깊은 홈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 불상의 웃주름은 아랫면에 깊이 패여져 있어 웃주름들이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불상이 하늘위에서 빛을 받았을 경우 웃주름 밑면에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웃주름들은 검은 그림자에 의해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니 이러한 점도 신라 예술가들의 재치있는 슬기라 하겠다.”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제작한 「경주남산의 불적」에서는 남산의 절터가 55개소에 불과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물론 당시에 조사되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유적들이 몇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이제 그 실효성을 거의 잃고 있다고 한다. 윤옹이 찾아낸 절터는 암자터를 합쳐 모두 113군데. 최근 남산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에 의하면 115군데라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이제는 산골짜기 어느곳에 깨진 기왓장이 있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윤옹은 주춧돌 하나에서도 절터의 전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간 옛사람들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남산에서 발견된 석불은 모두 79체. 그중에 절벽암면에 새긴 마애불이 50체로 가장 많고 立體로 새긴 불상은 29체가 된다. 자세로 나누면 좌상이 49체로 가장 많고, 다음 입상이 19체가 된다. 하늘로 날으는 비천상이 7체가 되고 倚像과 遊戲坐像이 각각 1체씩이고 머리만 남아있어 자세를 알 수 없는 상이 2체가 된다.

불교의 예배대상인 사원을 장엄케하는 탑은 현재 63기가 남아 있는데 윤옹은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칠불암에 있는 4등분으로 된 옥개석이며 다음은 상륜부를 제외한 높이가 7미터 가량 되는 창림사 탑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밖에 스님들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 석등이라 부르는 장명등, 불상이 없어진 불상대좌, 비석대와 경석대 등은 불교문화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남산에는 혁거세, 아달라왕, 지마왕, 일성왕릉이라 전해오는 능묘들과 헌강왕, 정강



탐골 부처바위 남면을 배경으로 서 있는 윤경렬옹.

왕, 신덕왕, 경명왕, 경애왕 등 신라 하대의 왕릉 9기가 있으며, 남간사 터에 있는 하수구, 천동골 절터의 디딜방아터와 천룡사의 맷돌 등은 옛날 절풍속을 보여주는 진기한 유물들이라는 것. 이렇게 볼 때 신라시대 때에는 골짜기마다 독경소리,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고 남산에 흘러 넘쳤을 것이라는 것이 윤옹의 추측이다.

#### 우리의 얼굴 찾아 경주에 정착한 지 50여년

남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기 위한 작업은 윤옹이 환갑을 맞이하던 해에 시작했다. 비록 관심은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다보니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기억에만 의존하던 것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차례씩 남산에 다시 올라 정확성을 기해야 했다. 신라의 역사나 불교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도 물론이다. 윤옹이 취재를 하기 위해 즐겨 찾은 곳은 남산 계곡에 있는 마을의 막걸리집. 술 한 잔 받아주고 나뭇꾼들에게 들은 정보는 그 어느 것보다 정확했다고.

경주 남산의 불상과 모든 유품에서 우러나오는 특징을 윤옹은 ‘자연과의 조화’로 보고 있다. 가령 산꼭대기에 있는 탑은 윗부분이 정교한데 반해 아랫부분은 거칠게 쪼아놓았는데, 그 이유는 인공적인 것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자연에 조금 보태놓는’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남산에 있는 유물은 남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곳으로 옮겨진 유물은, 윤옹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이미 죽은 것”에 다름아니다.

부처의 얼굴도 근접하기 어려운 위엄이 있다거나 한껏 멋을 낸 형상을 갖지 않은 것도 한 특징. 책 표지에 실린 부처는 선방골 삼존불의 본존인데 그 특징을 윤옹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얼른 보아서는 삼존이 모두 명랑하고 천진스러운 어린 아기들처럼 보인다. 불상들의 이러한 표정은 조성될 당시 7세기 초엽 명랑하고 천진스럽던 국민성이 반영되었고 또 전신의 키가 머리 길이의 5배로 아기들 키와 같은 비례로 되었기 때문이다. 길이보다 너비가 넓어 보이는 풍만한 얼굴에 크게 반원을 그린 눈썹이 깊게 패어졌고 그 밑에 눈두덩이 부풀어 올라 가느스름한 눈자위에 그늘을 지우면서 두 눈이 천진스럽게 웃음짓는다.”

윤옹의 원래 전공분야는 풍속인형 제작. 이를 위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것은 고사하고 우리 인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전무한 상태였다. 그래서 찾아가던 것이 당시 개성박물관장 고유섭 선생. 토우로 한국의 풍속을 빚으려 한다는 의도를 잘 경청해주던 고유섭 선생은, 3년간 일본에 유학한 자신의 경험을 전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앉았다고 한다.

사흘 후 고유섭 선생을 다시 찾은 윤경렬옹에게 들리는 말은 단 두 마디였다. 그 하나는 “3년동안 문은 일본의 독소를 제거하려면 10년이 걸린다”는 말과 “아름다움이란 그 자리에서 짝이 나서, 그 자리에서 꽃이 피는 것.” 고유섭 선생의 단 두 마디에 윤옹은 1949년 고향인 함경북도 주을을 떠나 경주에 안착한

다. 옹이 경주를 택한 것은 신라가 막을 내릴 때 전쟁을 치루지 않아서 유물이 많을 것이라는 것과, 그중에서도 불교문화의 화려한 모습을 간직한 통일신라의 유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우리의 얼굴은 부처의 얼굴”이라는 생각도 남산을 찾게 된 이유다. 즉 부처를 만들 당시 그 모델은 우리의 얼굴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한 의복에 있어서도 왕릉의 12지신상이 입고 있는 의상은 분명 신라인이 입던 의상으로 여겨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록으로 남산의 유적표, 신라탑이 되기까지의 변천, 석탑의 부분 명칭, 여래상의 형상과 장엄, 그리고 도면과 사진목록을 싣고 있어 보다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하고 있다.

#### “바위는 부처님의 靈이 머물고 있는 곳”

신라인들의 신앙은 지금과는 다른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윤옹은 추측한다. 그들은 “부처는 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바위나 속세와 절연된 깨끗하고 아늑한 곳에서 머물면서 가끔 필요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과 사귀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 친절하게 화랑을 가르치다가 자취를 감춘 미시랑이 미륵보살의 화신이었다는 이야기나, 경흥국사가 말 타고 다니는 것을 나무라고 남산으로 숨어버린 중이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는 이야기 등 많은 전설속의 이야기가 이를 대변해준다. 또한 그 주인공들이 사라진 장소가 바위라는 것은 남산에 석불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냉골에 있는 마애선각불은 다듬지 않은 자

연바위 벽면에 그려 놓았고 같은 계곡의 대마애좌불은 머리만 입체적으로 조각하고 몸체는 바위 덩어리를 그대로 살려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법은 바위 속에 부처님 靈이 머물고 있는 신앙에서 창안된 것이며, 대사방불이 새겨져 있는 탐골 부처바위나 칠불암의 사면석불은 우주의 핵심체인 빛을 상징하는 비로자나여래가 내려와 그 바위 속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모두 조각했을 경우 부처가 그 바위를 떠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만 조각했을 것이라 한다. 신라인의 소박한 신앙관이 바위 조각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남산에는 많은 절이 서고, 탑이 서고, 불상들이 새겨져 있어도 그 때문에 자연이 파괴된 곳은 없다. 북쪽은 불교에서 금기의 방향이었던지 북쪽으로 향한 예가 없다고 한다. 신라인들은 단지 바위산에 감싸인 아늑한 곳에 절을 짓고 바위 봉우리에는 탑을 세우고 선방을 짓고 전망 좋은 바위에는 부처님을 새겼으니 남산은 바로 신라 사람들이 동경하던 불국정도의 꿈을 펼쳐놓은 성산인 것이다. 경주사람이 아니면서도 경주 남산에 대한 연구를 끊임 없이 해온 윤경렬옹은 남산 밑자락 양지마을에 살면서 남산이 바로 경전에 나오는 만물산일 것이라 믿고 산을 본다.

—이성수 기자

**PUBLISHING ILLUSTRATION**

# 치요 Art...

여기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표지도 꾸밈니다  
그리고  
글과 그림이 어울리는  
기획도 하구요



서울·동대문구 용두2동 187-57  
TEL/922-0198-924-4573 FAX/924-4573